

한국러시아문학회보

ВЕСТНИК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NEWSLETTER

발행일 2009년 11월 20일 발행처 한국러시아문학회

통권 제37호

●●● 권두언

변현태

(총무이사, 서울대학교 교수)

러시아어는 ‘특수언어’일까

Globalization(세계화 혹은 전지구화)의 역설은 그것이 진행될수록 다른 한편으로 localization도 뚜렷해진다는 사실이 아닐까? 많은 외국문학 어학 전공자들이 다들 겪는 일이지만 문학 전공자인 내가 문화 관련 강의를 담당하게 된지도 대략 5년은 넘은 듯하다. 러시아 문화 강의를 하다보면 항상 학생들의 ‘이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맞닿게 된다. ‘이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 자체가 무어라 할 수 있을 성질의 것이 아니겠지만, 또한 강의를 하는 내 능력의 부족이겠지만, 러시아 문학, 예술, 음악, 대중문화 속에서 내가 애써 강조하는 어떤 보편성 대신,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독특함’이다. 요컨대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러시아란 언제나 ‘로컬함’으로 가득한 어떤 곳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다들 비슷하겠지만 서울대 인문대의 어문학부는 6개의 언어권(영, 불, 독, 서, 러, 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외의 언어권들에 대한 강의(가령, 아랍어, 스와일리어, 이태리어 등)는 ‘특수어’로 분류되어 언어학과에서 개설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언어학과에서 개설되는 ‘외국어 입문’ 과목들 중 어떤 것은 러시아어 입문과목들 보다 더 많은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가령, 이

태리어). 사실 ‘보편어’와 ‘특수어’를 구별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는 하지만 현재 ‘러시아학’이 한국에서 처한 상황의 일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보편어’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은 어떤 ‘특수어’보다는 더 ‘특수한’ 위치.....

소련의 붕괴 이후 약해진 러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에서 이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는 ‘세계화’가 추구하는 어떤 기준에 못미치고 있다는, 이미 미국에서도 ‘슬라브학’ 전체가 곤경을 겪고 있다는 사정으로 이 위치를 객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학이 사회적으로 갖는 위치와 무관하게 주체의 태도는 또 태도 나름대로 반성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최근에 나름대로 출판계에서는 제법 자리를 잡은, 주로 인문학 서적을 출판하지만 외국 문학도 끊임없이 소개해온 한 출판사의 사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몇 번 외국 소설 번역으로 ‘대박’을 쳐본 경험도 있는 그 선배의 말은 세계의 출판시장이 불어권과 스페인어권에서 슬슬 중국어권과 러시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니 어느새 한국에서 위화, 수통, 모옌과 같은 중국 소설가의 이름이나 같은 문외한에게도 낯익게 되었다. 그런데 펠레빈, 울리츠카야, 소로킨과 같은 현대 러시아 작가들은?

● ● ●
연차학술대회
소식

● ● ●
학회지 발간

다시 말하지만 ‘보편어’와 ‘특수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화가 곧 미국화인 한국의 사회적(학문적) 풍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경고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에서 러시아가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 더 ‘특수하고’ 더 ‘이국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러시아학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도

▷ 제56차 학술논문발표회가 지난 5월 30일(토)에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학술논문발표회는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20주년 학술대회를 겸했었던지라 더욱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발표에는 운영순 회원(경북대)이 <러시아/소비에트 고전의 재해석-소로킨의 경우>, 김규종 회원(경북대)이 <체호프 장막극에서 부차적인 인물의 구실>, 최진석 회원(서울대)이 <초기 바흐친의 사유에 나타난 무의식과 이질언어성의

지난 10월 25일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32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제32집에는 김연경 회원(서울대)의 [신화화-탈신화화의 매커니즘과 ‘소설-비극 “악경”을 포함한 5편의 문학 논문과, 이기웅 회원(경북대)의 [러시아의 주정대명사]를 포함한 2편의 어학논문, 그리고 성동기 회원의 “러시아와 중국의 정치적 협력관계 분석과 전망-공조체제의 허와 실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4편의 문화관련 논문이 실려있습니다.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은 좀 우습지만 근대화이후 한국에서 러시아가 가져왔던 지속적인 ‘지분’을 생각해보면 더 더욱 그렇다. 러시아가 더욱 더 ‘세계화’될 가능성과 무관하게 러시아학 담당자들의 고유한 몫이 있을 것이다. 물론,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이 몫이 꼭 ‘러시아의 대중화’는 아닐 것이다.

동력학>, 이형숙 회원(충북대)이 <권력의 언어, 언어의 권력-자마찐의 ‘말’>, 이문영회원(국민대)이 <러시아 노스텔지아: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의 과거 활용>, 변현태 회원(서울대)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재인식>, 최성호 회원(충북대)이 <굴절과 교착>, 김용화 회원(충북대)이 <18-19세기의 러시아 문학어의 규범화 및 문법서화에 대한 연구>의 제목으로 각각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 도착 예정일이 경과했음에도 학회지를 수령하지 못하신 회원은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재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학회비를 미납하여 학회지를 우송받지 못한 회원께서는 미납된 학회비를 납부하시고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지에 변동이 있는 회원께서도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총무간사 김정일(jungil-kim@hanmail.net, 011-9714-5909)

● ● ●
공 지 사 항

▷ 제57차 연차국제학술대회
개최 안내

제57차 연차국제학술대회가 12월 5일(토)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장소는 서울대학교 교수회의실(7동), 소회의실(7동), 러시아연구소(3동)이며, 시간은 오후 1시 부터입니다. 특히 이번 연차국제학술대회를 마친 후에는 총회가 개최되오니, 많은 회원들의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어학분과에서는 Кулибина교수(푸시킨대학)가 <Роль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а в обучении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или о том, как «текст превращается в урок языка», М. А. Олейник교수(게르첸사범대, 경북대)의 <К вопросу об обучении русским фразеологизмам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на примере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х единиц, соотносимых со свободными словосочетаниями), 안병팔회원(서경대)의 <쥐바네스키(Жванецкий)의 아포리즘에 투영된 러시아인의 사고방식>, 정하경회원(서울대)의 <소유에서 양상으로: 여격-원형 양상 구문의 발달>, 이남경회원(경상대)의 <러시아어 양상술어의 의미확장과 다기능성>등의 발표들이 있을 예정이며, 문학분과에서는 Н. Ю. Грякалова교수의 (Пушкинский Дом), <Фикциональное поле мемуарных очерков Георгия Иванова>, А. В. Леденев교수의(МГУ), <‘Нулевые’ (2000-е) годы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общ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В. Шуников교수(МГУ, 서울대)의 <Литературная классика как источник интертекстуальности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й драме>, 이승억회원(경북대)

의 <1920-30년대 러시아 안티유포아 드라마투르기에 나타난 소통과 단절의 문제>등의 발표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과에서는 운영순회원(경북대)의 영화로 읽는 플라토노프: 소쿠로프와 콘찰롭스키의 경우>, 문석우회원(조선대)의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적응 실태조사: 광주 전남북 지역의 러시아 및 CIS국가 출신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변현태회원(서울대)의 <초기 근대 러시아의 개인-아바쿰과 폴로츠키>, 백용식회원(충북대)의 <세르게이 트레짜야코프의 희곡 『아이를 위해(Хочу ребенка)』 연구>등의 발표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 정례학술논문발표회에서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발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각 분과의 학술이사들에게 A4 1-2장 이내의 발표 요약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이사회 및 총회개최

12월 5일 11시 서울대 동원관에서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이사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술대회가 끝난 뒤, 인문대 교수 회의실에서는 총회가 개최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33집 논문접수 중

2010년 2월 25일 발간예정인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33집에 게재할 논문을 받고 있습니다. 33집의 논문 제출 마감일은 2010년 1월 5일이고,

	<p>조기 제출마감일은 12월 5일입니다. 발간 후 회비를 납부한 회원님들께 발송될 예정입니다.</p> <p>* 참고로 러시아어 어문학연구논집에 게재할 원고를 보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 러시아문학회 편집부 rusistika@hanmail.net</p> <p>▷ 회비 납부 현황</p> <p>2009년 11월 20일 현재 학회비 납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내주신 회비는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되어 학회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회비 납부를 하였으나 아래 명단에 누락된 경우에는 총무간사(김정일, jungil-kim@hanmail.net)에게 연락 바랍니다.</p> <p>△ 평생회비 완납(1997년-2009년 11월 20일 현재)</p> <p>김경태, 김규종, 김선명, 김선안, 김세일, 김용화, 김정아, 김정일, 김진규, 김진영, 김철균, 김희숙, 문석우, 박종소, 박재만, 박현섭, 박형규, 박혜경, 박혜옥, 백용식, 변현대, 서상범, 석영중, 송인필, 심민자, 심성보, 안병용, 안병팔, 안 혁, 오원교, 오종우, 유승만, 이강은, 이규환, 이기웅, 이기주, 이남경, 이대우, 이명현, 이영의, 이장욱, 이재혁, 이준형, 이항재, 이현숙, 이형숙, 전지용, 전명선, 정명자, 조미경, 조주관, 조유선, 조혜경, 최건영, 최병근, 최 선, 최성호, 최종술, 최진희, 허승철, 홍대화, 홍지인, 한예경 (이상 63인)</p>	<p>△ 평생회비 부분납(2009년 11월 20일 현재)</p> <p>고영량(10만원) 김혜란(10만원), 민경현(10만원), 심지은(15만원), 이득재(38만원), 윤새라(10만원), 서선정(10만원), 홍택규(15만원), 안지영(20만원), 이지연(15만원), 서선정(10만원), 윤영순(10만원), 천호강(10만원), 변현대(25만원) (이상 14인)</p> <p>*** 현재의 명단은 2009년 11월 20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완납해 주시면 바로 평생회비 완납명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p> <p>△ 2008 일반회비 납부현황 (2008.1.1-2008. 12.31)</p> <p>개인회원: 강수경, 강철, 길윤미, 김연경, 김종민, 박선영, 배성현, 서승현, 성동기, 우복남, 원석범, 이문영, 이수현, 이인영, 임혜영, 전성희, 최정현, 허효영(이상 18인)</p> <p>△ 2008 단체회비 납부현황 (2008.1.1-2008. 12.31)</p> <p>단체회원: 고려대, 경북대, 부산외대, 상명대, 한국외대용인캠퍼스, 안양대, 국회도서관, 대구대 (이상 8개 기관)</p> <p>△ 2009년 일반회비 납부현황 (2009.1.1-2009. 11.20)</p> <p>개인회원: 전성희, 이경완, 우복남, 정하경, 최진석, 박선영, 이인영, 임혜영, 성동기, 김연경, 이현우 (이상 11인)</p>
--	--	---

● ● ●
회원동정

● ● ●
신입회원 소개

● ● ●
신간소개
(인터넷 교보문고 및 출판사 제공
서평을 올립니다)

△ 2009년 단체회비 납부현황
(2009.1.1-2009. 11.20)

단체회원: 연세대, 고려대, 한국외대,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안양대, 경북
대, 국회도서관, 조선대, 부산외대,
상명대 (이상 10개 기관)

▷ 2009년도 회비 납부 안내

아직 2009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은 아래 계좌로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원 입회
비는 2만원이며, 정회원의 연회비 및

▷ 회장이신 최성호회원(충북대)께서
학회발전기금으로 100만원을 회사하
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지난 9월 1일자로 운영순 회원이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지난 9월 1일자로 김수환 회원이

다음은 우리 학회의 새 식구가 되신
분입니다. 입회를 환영하며 앞으로
활발한 연구와 학회 활동을 기대합
니다.

▶ 저서

【반성과 지향의 러시아 소설론】
저자 이강은 | 출판사 한국학술정
보 2009년 5월
『내일을 여는 지식』 시리즈 《반성

평생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생회
비는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전임교원/ 5만원
- △일반회원/ 3만원
- △평생회비/ 비전임 30만원,
전 임 50만원

* 입금하실 계좌 번호는 **우리은행
1006-901-280735 최성호(한국러시
아문학회)** 입니다. 입금하실 때는
반드시 입금 내역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연회비, 홍길동
평생회비)

한국의국어대학교 노어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교원임용, 학위취득, 결혼, 연구 활
동을 위한 출국이나 귀국 등의 소식
을 총무이사(straussrun@hanmail.net),
총무간사(jungil-kim@hanmail.net)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식은 물론,
주변 회원들의 소식도 좋습니다

△ 천호강-부산외대 노어과 졸업,
2008년 모스크바 국립대 박사. 논문:
Культурный процесс в россии в пер
вое десятилетие после октябрьской
революции (1917 - 1928 гг.)

과 지향의 러시아 소설론》. 현실을
변화시키는 문학의 진정한 힘은 어
디에 있는가. 이 책은 이러한 물음
에서 시작하여,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 현실로 가는 문학의 우회

	<p>로를 찾아가고자 소설이론의 미학적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p> <p>【러시아어 이제 동사로 표현하자】 저자 장한 출판사 이담북스 (이담BOOKS) 2009년 6월 외국어 초심자가 문법과 어휘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면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을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마련이다. 이때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어휘 학습서가 필요하다. 필자는 러시아어 학습자의 이런 가려움을 긁어주 고자 이 책을 엮었다.</p> <p>【백야의 삐제르부르크에서: 러시아 예술기행. 2】 저자 이병훈 출판사 한길사 2009년 5월 『모스끄바가 사랑한 예술가들』의 후속으로 러시아 예술기행의 완결판이다. 이 책은 러시아 도시 중, 러시아의 수준 높은 정신문화를 그대로 응집시켜놓은 상징적인 공간인 상뜨 삐제르부르크를 다룬다.</p> <p>【러시아어 발음과 구조】 저자 강덕수, 이성민 출판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9년 8월 이 책은 러시아어의 음성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지난 천년 동안 러시아어는 음운 체계를 내재화하면서 형태 체계 중심으로 언어의 특성이 변화하였다. 형태적 구조 안에서 음운 체계나 발음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본서는 음성 구조의 분석에서 출발하지만 음운 체계의 운용과 형태 체계와의 관계를 포괄하고 있다.</p>	<p>【고골과 현대성 러시아CIS연구소 슬로보츠크서】 저자 슬로보츠크 편집위원회 출판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년 5월 『고골과 현대성』은 슬로보츠크 편집위원회에서 펴낸 것으로 인문학 분야에 전문서적이다. 이 책은 20세기 초 만델슈탐의 산문과 러시아 최근 소설이 고골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총 8편의 논문을 통해 고골에 관한 논평과 고찰이 다양한 시각에서 서술되고 있다.</p> <p>【러시아 문화예술의 천년】 이덕형 지음 생각의나무 2009년 09월 『러시아 문화예술의 천년』은 러시아 문화예술 1000년 역사를 집대성한 국내 최초의 러시아 문화사 연구서이다. 882년 올레크 공이 세운 키예프 루시 공국 시대부터 소비에트 해체 이후의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1000여년이 넘는 역사의 러시아 문화와 예술을 다루고 있다. 사진, 회화, 조각, 건축물, 포스터 등의 풍성한 시각적 자료들이 충실한 설명과 참고문헌, 색인과 곁들여져 대중성과 학술성을 두루 겸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p> <p>【러시아 정치사. 1 : 바이킹의 나라 러시아】 이신욱 지음 동아대학교출판부 2009년 08월 『러시아 정치사. 1』이 책은 러시아 역사를 기본으로 동시대의 권력자들의 정치, 외교, 군사행동을 통해 러시아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권력을 강화하고 국가를 이끌어나갔는지를 살펴보았다.</p>
--	---	---

【한 단계 높은 러시아어. 2(구문편)] 박종소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년 09월

본 교재는 총 15과로 짜여져 있으며, 러시아 일상생활의 실제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각 과를 문법, 어휘, 주제별 대화, 러시아의 전통과 문화, 작문, 강독 텍스트, 어휘목록으로 구성하였다. .

【러시아와 유럽] 저자 니콜라이 다닐롭스키 | 역자 이해승 | 출판사 지만지 2009년 10월

『러시아의 유럽』은 러시아의 향방을 제시한 사회 비평서이자 문화 이론서로 소개되었다. 슬라브주의의 명맥을 잇는 사상가들, 특히 책을 간행했던 스트라호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책은 정통 슬라브주의에서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다.

【러시아어 회화 사전]

전혜진 지음 문예림 2009년 10월

『러시아어 회화 사전』은 러시아어 말하기 능력의 발전을 목표로 한 책이다. 상황에 맞게 말하는 법, 질문하는 법, 질문에 답하는 법,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법 등 의사소통에 필요한 회화 표현을 총망라하고 있다.

▶ 역서

【러시아 미술사] 저자 A.I.조토프 | 역자 이관수 | 출판사 동문선. 2009.6
러시아 사회 발전의 흐름 속에서 성장해온 러시아 미술사를 11~17세기 중세 러시아 미술부터 20세기 초까

지 컬러화보를 중간중간 곁들여 설명한 러시아 미술사이해서.

【미래 이후의 미래-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기원과 방향] 저자 미하일 엠슈테인 | 역자 조준래 |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2009.5

[머리말]지난 1980년대만 하더라도 포스트모더니즘은 오직 서유럽의 문화현상일 뿐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의 노화와 붕괴, 그리고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탄생을 그 내부에서 목도했던 사람들은 러시아라는 나라가 서구에 못지 않게, 아니 서구보다 훨씬 더 질게 시뮬라크르와 상호텍스트성과 자기지시적 기호로 물든 포스트모던의 제국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되찾은 젊음] 미하일 조쉬첸코 지음 김정아 옮김 청어람미디어 2009년 11월

『되찾은 젊음』은 재미있고도 세속성에 대한 풍자적인 이야기들로 유명한 미하일 조쉬첸코의 장편소설이다. 이 책은 이야기 부분과 해설소논문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저자는 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 바실록의 삶을 통해 독자들에게 시들어가는 것과 다시 찾은 젊음의 의미를 묻고 있다.

* 회원 여러분께서 출간하신 신간이 있으면 학회 홈페이지에 간략한 정보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관련 서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도 좋습니다.

한 국 러 시 아 문 학 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변헌태 교수 연구실 내 (사무국)

Tel: (02) 880-9030 Fax: (02) 871-6128 학회 Home Page: www.russian.or.kr